

2019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
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그리스도인의 생활

메시지 3

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—
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

성경: 요 1:14, 29, 7:39, 20:22, 고전 15:45 하, 갈 3:2, 5, 14, 빌 1:19

I.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삼일 — 아버지, 아들, 영 — 이시다 — 갈 3:20, 4:4, 6.

- A. 본질적인 삼일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승계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존하시며 상호내재하신다. 경륜적인 삼일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안에 있는 연속적인 세 단계 안에서 일하신다 — 마 28:19, 앱 1:4-5, 7, 13, 요 5:43, 14:26.
- B.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먼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후에 아들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심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— 갈 4:4, 6.
 - 1. 첫 번째이신 분께서 두 번째이신 분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첫 번째이신 분께서 두 번째이신 분과 하나이셨다.
 - 2. 첫 번째이신 분께서 세 번째이신 분을 보내셨지만 세 번째이신 분은 여전히 두 번째이신 분과 첫 번째 이신 분과 하나이셨다. 이것이 신격 안에 있는 하나이다.
 - 3. 세 분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. 신성한 삼일성에 의해 나타난 모든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이 구별에서 나온다 — 마 28:19.

II.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— 요 7:39, 갈 3:14, 빌 1:19.

- A. 그 영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들을 통과하신 후의 삼일 하나님께서 — 요 7:39.
 - 1.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륜적인 문제이다 — 요 1:14, 히 9:14, 고전 15:45 하.
 - a. 하나님께 있는 변화는 결코 본질적일 수 없다. 그 변화는 오직 경륜적일 뿐이다.
 - b.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에서 변하셨다.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변하셨지만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.
 - 2. '과정을 거쳤다'라는 말은 신성한 경륜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가리키고, '완결되었다'라는 말은 그 과정이 완결되었음을 가리키며, '완결되신 영'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영이 되셨음을 함축한다 — 요 7:39.
 - 3. 완결되신 영은 삼일 하나님, 사람이신 예수님, 그분의 인간 생활, 죽음, 부활의 복합체이다 — 요 7:39, 행 16:7, 롬 8:10-11, 빌 1:19.
- B.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"아직 계시지 않았다" — 요 7:39.

-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(창 1:2), 요한복음 7장 39절의 때에는 '그리스도의 영'(롬 8:9), '예수 그리스도의 영'(빌 1:19)이신 그 영께서 "아직 계시지 않았다."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.
-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 영광스럽게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— 뉴 24:26, 빌 1:19.
- 마지막 아담,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. 그 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한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둘 다 가지고 계신다 — 고전 15:45 하, 행 16:7, 롬 8:9.

III. 부활 안에서 아들께서 제자들 안으로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불어 넣으셨다 — 요 20:22.

- A.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.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— 요 1:29, 20:22.
- 20장 22절의 성령은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14장 16절과 17절, 15장 26절, 16장 7절과 8절, 13절에서 약속되었던 그 영이시다.
 -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— 요 7:39.
 - 그분은 그 영으로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셨고 제자들 안에서 사실 수 있으시며 그들은 그분에 의해,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은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— 요 20:22, 14:19-20, 15:4-5.
 - 제자들 안으로 자신을 불어 넣으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— 고전 15:45 하.
 -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눠주셨다.
 -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. 그 이유는 이 영께서 그분의 숨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숨이다.
- B.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다 — 고후 3:6, 17, 요 20:22.
-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들이쉬기 위한 거룩한 숨이 되셨다 — 요 1:29, 20:22.
 -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과 어린양과 나무와 숨이신 그리스도가 있다. 말씀은 표현을 위하고 어린양은 구속을 위하고 나무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고,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다 — 요 1:1, 29, 10:10 하, 14:19.
- C.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. 오직 숨, 곧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— 갈 3:2-3, 14, 빌 1:19.

IV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는 이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— 갈 3:14, 5:16, 18, 25, 6:8.

- A. 삼일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영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되셨다 — 요 7:39, 갈 3:14, 6:18.
- B.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은 완결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— 빌 1:19-21 상.
- C.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한 내주하시는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다 — 요 7:39, 갈 3:14.
- D.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그 영을 받는 생활이다 — 갈 3:2, 5.